

참가보고서

윤재호¹

1. 개요

- 1) 명 칭 : 제2회한일정기심포지엄 -소자고령화에 직면한 한일의 복지정책(양국비전)-
- 2) 개최일시 : 2007년 6월 2일(토) 10:00 ~ 17:30
- 3) 공동개최 : 연세대학교, 일본복지대학(2회 주최)
- 4) 장 소 : 나고야국제센터별동홀
- 5) 홈페이지 : <http://www.nihonfukushi-u.jp/coe/kaigi/yotei.html>

2. 참가내용

1) 발제²

가. 일본의 개호보험사업의 실적과 평가(일본복지대학 지자체 지원소프트에 의한 분석에서), 히라노 타카유키(일본복지대학)

실적 분석에 이은 세 가지의 평가가 이루어짐. 첫째, 1인당 재택비용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재택비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지역케어의 증대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보급이 예측된다. 셋째, 시설입소가 늘어 개호비용이 늘어나므로 거동 가능 노인의 경우 지역케어를 적극 추진하여 비용절감을 꾀해야 한다.

나.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검토, 정 형선(연세대학교)

작은 규모의 법 제도화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조직화 나가는 것이 큰 방향이다. 일본의 개호보험과 다른 큰 특징은 피보험자의 전국민 확대, 서비스의 간소화³, 개호보험 당시 일본의 생활수준 및 시설 설치개수 등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경험을 빗대어 작은 규모의 제도시작을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서비스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다. 일본의 소자화(少子化)문제의 특징(무엇이 유효한 대책인가), 쇼지 요코(리쿄대)

아이를 낳는 일은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경쟁력과 연결이 된다. 여성이 일을 하기 때문에 “work=남성, life=여성”이라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서 사회생활(여성 개인권리)과 양육 사이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수준의 balance조절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¹ 일본복지대학교 개호보험·복합체 연구생(Niki Ryu지도), [jehoyun@welfare.or.kr\(KOR\)](mailto:jehoyun@welfare.or.kr), [yun_jeho@yahoo.co.jp\(JPN\)](mailto:yun_jeho@yahoo.co.jp), www.jehonara.com

² 결론만 기록하도록 한다.

³ 1~3단계로 중증이상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우선실시 이에 따라 제공 서비스의 종류도 일본에 비해 그 종류가 적다.

라. 한국의 ‘초’ 저출산율과 ‘사회적 고령화’, 김미정(서울아산병원 임상조교수)/ 조영태(서울대학교)

출산율 감소를 위한 정책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함을 주장하며 노인정책과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출산 및 양육정책을 찾아 나가야 출산율 증가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함.

2) 토론

일본이 개호보험이 시작 된지 7년에 접어들었고 재택중시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시설로 꾸준히 늘어간다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변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며 일본 정부는 시설과 재택의 지원단계인 그룹홈을 장려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고 답변함.

복합체가 꼭 필요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니키 류 선생의 저서⁴에서의 주장에 대해 복합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대상자들은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끊임없이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복합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 한 것임을 답변

3. 결론

국가간 심포지엄에서의 공동단어의 정립의 필요성을 상호간 인지하였고,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험을 비추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함에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소자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공유를 통해 양국 학자들 간의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었음.

4. 사진



⁴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체, 2006 청년의서 정형선 편, 니키 류 저